

# 곡물·차·술...5000년 중국 음식문화 변천사

## 중국음식 문화사

자오룽광 지음, 심규호·유소영 옮김

이백은 술 한 잔에 시 백편을 썼다고 전해온다. 그만큼 술을 마시면 시상이 강렬하게 떠올랐음을 보여준다. 이백의 예에서 보듯 술과 문학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중국의 역사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정치부대나 술이 어우러진 자리에서 문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술을 포함해 음식은 곡물과 연관이 있다. 중화문명의 음식문화와 식재료를 모티브로 문화사를 조명한 책 '중국음식 문화사'는 곡물과 차, 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음식문화의 변천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시적인 언어와 결합해 재미를 선사한다.

저자는 중국음식문화연구소 소장이자 중국 식문화연구회 총신 명예회장이자 자오룽광 교수다. 40여 년간 중국 음식사, 음식학 연구와 교화에 몰두했으며 중국 음식문화와 음식연구의 개척자로 알려져 있다.

자오룽광 교수가 40년 전 중국 요리업자들과 어느 회의에서 한 발언이 주목을 받았다. '한식과 일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이 주어졌다. 그는 "중국의 입맛 습관이나 친화도에 가장 가까운 음식은 한식입니다"라고 말했다.

그의 말은 중국의 음식문화가 한반도 음식문화와 오랫동안 교류했음을 전제한다. 나아가 '중국의 입맛 습관과 음식 친화도'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밝힌 것이



남송 화가 유충년의 '연도도' 일부.

(인문공간 제공)

다. 즉 중화민족은 음식문화와 관련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한국과 일정한 영향을 주고받았다.

무엇보다 책은 저자가 10권의 시집을 펴낸 시인답게 글이 유려하고 시적이란 특징이 있다. 고전적 서술방식보다 곡물 중심의 서사적이고 시적인 언어로 집필한 덕분에 딱딱하지 않다.

책은 모두 7개의 장르로 이루어졌다. 쌀, 밀, 술, 차, 콩이 각각의 장에 배치돼 있고 이후 식기 문화, 정중지변(술 안의 기묘한 변화)이 기술돼 있다.

'진주 같은 쌀 알갱이 입안이 향기를 네'라고 노래한 쌀은 중국인의 식생활에서 주식을 강조한 부분이다. '남쪽은 쌀, 북쪽은 밀'이라는 표현은 선사시대부터 내려온 기본 구조였다. 이러한 관념은 이후 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에 비해 밀을 포함한 잡곡은 경시하는 경향으로 이어졌다.

고고학에 따르면 용산(龍山) 시대에 황하 유역에서 밀 재배가 성행했다. 물론 밀을 먹기 시작한 것은 더 오래됐으며 밀은 최초의 밥이었다. 특히 햇밀로 밥을 하면 윤기가 있었다고 전해온다. 앞서 언급한 대로 술은 '일정한 학식을 갖춘 문화인'과 떼어 수 없는 관계였다. 주인(酒人)은 모두 애주가의 통칭이다.

중국 차 문화에 있어 당나라 시기는 중요한 때였다. "차를 귀하게 여기는 풍속으로 인해 명품 차가 갈수록 많아졌다"는 것은 당대의 차를 마시는 일이 전국적으로 유행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두부를 일컬어 중국에서는 '가난한 백성의 음식'이라고 했다. 그만큼 역사적으로 값싸고 보편적인 음식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에 따르면 두부는 중화민족 문화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식품이자 식문화의 보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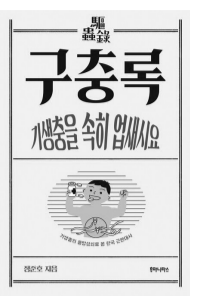
한편 책에는 식기문화에 대한 저자의 심미관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식 효과는 음식만이 아닌 그에 상응하는 물건이나 척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문공간·8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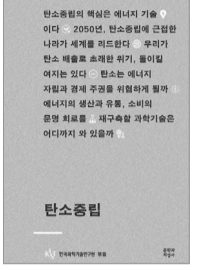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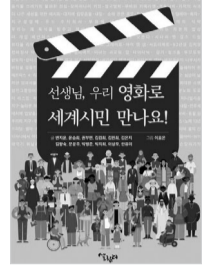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아오이가든=한국일보문학상, 이효석문학상,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등 유수의 문학상을 수상한 편혜영 작가의 첫 소설집. 개정판으로 출간된 이번 작품집은 작가의 눈부신 문학적 시작을 엿보는 즐거움이 있다. 특히 표제작 '아오이가든'은 지금의 편혜영과 18년이라는 긴 시간이 드리워져 있다. 그럼에도 이제는 하나의 장르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작가의 서스펜스 무대는 이 한권에 오히려 깔려 있다. <문학과지성사·1만6000원>



▲구궁록=1969년부터 1995년까지 집진 및 투약 사업으로 누적 연인원 3억 명 이상, 연간 1000만 명이 동원된 기생충 박멸 사업. 70년대부터 90년대 전반까지 학교를 다녔던 이들이라면 기생충, 특히 채변봉투와 구충제에 대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번성했던 기생충이 25년만에 사라진 것은 한국보건 의료사의 빛나는 한 장면이다. 기생충의 흥망성쇠로 한국 근현대사를 돌아본다. <휴머니티·1만8000원>



▲선생님, 우리 영화로 세계시민 만나요=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들이 영화로 세계시민교육을 이야기하는 책. 저자들은 영화를 매개로 지속가능발전목표가 지향하는 가치인 '사람, 번영, 지구, 평화, 협력'을 구조화해 세계시민교육의 정수를 보여준다. 독자들은 기후위기와 빈곤, 불평등, 전쟁과

난민 등 인류의 당면 문제를 고민하는 계기와 만나다. <살림터·1만9000원>

▲탄소중립=기후 위기와 맞물려 가장 많이 화두로 제시되는 말이 바로 탄소중립이다. 탄소 배출을 막기 어렵다면 배출한 만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제적 차원에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어 버린 탄소중립 개념을 연구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연구를 수행하는지 살펴본다. 특히 에너지 생산과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검토한다. <문학과지성사·1만7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 신화 탄생·신성 깃든 땅...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세계여행

## 신화가 좋다 여행이 좋다

## 성지가 좋다 여행이 좋다

세라 백스터 지음, 최경은·조진경 옮김

어딘가로 떠나는 여행의 테마는 여러가지다. 미술관이나 건축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먹거리 여행에 나서기도 한다. 800km가 넘는 산티아고순례길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이들도 많다.



힐링과 믿음의 땅으로 떠나는 여행, 신화와 전설이 깃든 곳으로 떠나는 여행을 다룬 책이 나왔다. '성지가 좋다 여행이 좋다', '신화가 좋다 여행이 좋다'가 그것이다. 여행작가인 세라 백스터가 글을 쓰고 예

이미 그라임스와 헤리 골드호크가 일러스트를 그렸다. '신화가 좋다 여행이 좋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화, 전설 등이 탄생한 25곳의 장소를 소개하는 책이다. 신화는 협소한 골짜기, 높은 산 정상, 외딴 섬 등 사람들의 접근이 쉽지 않아 호기심을 더 키우고 그리스 로마, 북유럽 신화의 신들, 전설적인 영웅들, 골렘, 엘프, 거인, 마녀, 고블린, 호수의 괴물 등 등장인물들은 이국적이고 스토리도 드라마틱해 드라마, 게임, 영화 등의 단골 소재다.

작가는 그 장소들의 지역적 특성, 문화, 역사는 물론 그곳을 방문했던 유명인들의 이야기를 곁들여 흥미진진하게 소개한다.

책에서는 아서왕의 전설이 살아 있는 잉글랜드 틴타겔성, 괴물이 출몰했다던 스코틀랜드 호수, 그리스 신화 속 크노소스의 미궁이 기록과 신앙에 투영된 사르트르 대성당, 골렘의 고향인 프라하의 스타노나바 유대교 회당, 미스테리한 사막 위 나스가 지상화 등을 만난다. 마음을 사로잡는 80여 쪽 전후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삽화가 눈길을 끈다.

'성지가 좋다 여행이 좋다'는 종교의 현장을 찾아가

는 책이다. 대자연의 위력 앞에 무기력한 인간,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나 세계에 대한 동경과 경외심, 초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의미 부여 등을 위해 사람들은 종교를 믿는다.

책에서 만나는 장소는 모두 25곳이다. 소개되는 곳은 반드시 아름답거나 경이롭거나 독특하다고 할 수 없지만 수백 년 수천 년 간 이어져온 사람들의 소망과 기도의 힘이 모여 있기 때문인지 영적으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저자는 이 장소들에 대해 "한 마디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마법과 미스테리에 신성 한 스펀을 엮은 곳들"이라고 말한다.

이 책을 즐길 또 다른 이유는 산티아고 순례길, 몽생미셀, 웨다곤 파고다, 갠지스강, 티티카카 호수, 이스터 섬 등 관광명소로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장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다른 종교, 다른 나라의 역사 문화에 대한 지식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고즈넉한 삽화들은 현장으로 직접 순례를 떠나듯한 기분을 전해준다.

(울렛북스·각권 1만9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홍길동, 조선을 박차고 새 나라를 만들다=조선 사람들이 좋아했던 영웅 소설로 여전히 다양한 콘텐츠로 재창작되고 있는 작품이 '홍길동' 관련 책이다. 그만큼 주인공 홍길동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어필을 하고 회자되고 있다. 태어난 출신 성분으로 차별을 받는 부분에 저항했던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애정이 깊었음을 보여준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했다. <천개의 바람·1만3000원>

주인공 보푸라기 또한 집 밖으로 나와 모험을 시작하면서 고양이와 숲, 거미 아주머니, 민들레 씨앗을 만나며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하루 동안의 모험에서 보푸라기는 한 뼨 더 성장을 한다. <별골·1만6800원>

▲배려하면서도 할 말은 하는 친구가 되고 싶어=초등학교 교사인 저자는 평소 친구와 관련된 많은 상담을 받는데 대부분 친구 고민이었다. 마음이 어려서 남에게 잘 맞춰 주는 아이. 싫어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 등이 적지 않다. 저자는 각자의 경제적 존중하기, 제대로 동의 나누기, 필요할 때 싫다고 말하기 등을 설명하며 이러한 법을 잘 익히면 나도, 친구도 똑같이 소중히 지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파스텔하우스·1만3500원>

봄에 떠나는 그림은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도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메이투어 : 062-385-0515 | 투어나우 : 062-575-8019

## 명품매장가맹점모집

(구찌, 버버리, 프라다, 발렌티노 등 약 1,000여개 명품 브랜드 취급)

**모집지역**

- ▲ 광주(남구, 서구, 광산구)
- ▲ 전북(전주)
- ▲ 전남(여수, 목포, 순천)

**운영**

-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 ▲ 온, 오프라인 판매 시스템
- ▲ 네이버 및 인터넷 플랫폼 입점 판매중
- ▲ 점주로 입점 가능(기본 급여)
- ▲ 현 본점 매점 성업중
- ▲ 명품샵 투자자 대 모집(수익율 : 년 15% 확정) (담보제공 및 물품제공)

**본점**

-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용봉 전자랜드 보짝 옆) 필 명품관

010-2288-0849 / 062-511-0849